제501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82. 6. 27 (1)

연중 제 13 주일

기도서 380 면
제 1 독서 : 지혜 1, 13-15. 2, 23-24
제 2 독서 : 고린후 8, 7. 9. 13-15
복 음 : 마르 5, 21-43 (21-24 35b-43)

숲정이

발 행 천주교전주교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 론

중심 좀 잡읍시다!

이 종 원 신부

오늘 복음은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 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이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보려고 밀치락 달치락 하는 때에, 12년이나 고질적인 하혈병에 걸려서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린 한 부인이 용기와 신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끝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르 5, 21-43)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하십니다.

신부님! 농사란 반절은 우리 인간이 짓고, 반절은 하느님이 지으십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 모두가 반절은 우리 인간의 피나는 노력이요, 반절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워집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요사이 신문, 잡지, 텔레비를 보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주는 사건들이 연일 많이 터지고 있읍니다.

우순경 총기 난동사건,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사건, 은행원 자살사건, 증권회사 간부 횡령사건, 세모녀 피살사건, 근친 살해사건, 자살사건……. 믿음을 가진 사람 조차도 자기의 재산과 돈,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문, 자기의 힘에 의해 인간사가 모두 이루워 진다는 생활 신조로 살아간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읍니다. 이런 생활신조라면 중심이 흔들리는 생활이며, 중심을 잡는 믿음을 하나의 장식품 악세사리로 쉽게 착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맛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만 그 음식을 먹고 체내에 그 음식이 흡수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힘, 기운이 되어 나올 때 그 음식은 더욱 가치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고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안에 모든 행위를 통해서 힘과 용기와 생활의 중심을 이룰때 더욱 가치있고 좋은 것입니다.

중심 좀 잡읍시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고린전 1, 25)

반칙은 반칙을 낳고

텔레비젼을 멀리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손이 닿고 눈길이 간다. 지난번 고교야구 뻐만 해도 전북을 대표하는 군산상고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괜히 좀이 쑤셨다. 한편으로는 역전의 묘미를 기대하는 맛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무엇이던지 부족하기만 하고, 그런데다가 끝찌에서나 맴도는 전북인지라 고교야구라도 이겨주기를 기대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도 그럴 것이다. 우승한 기쁨이라고 해야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별로 걸지도 않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재경기로 치루어진 결승전은 그야말로 박진감이 넘쳤다. 판정에 대한 시비와 항의는 굉장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눈에는 반칙이라고 여겨지는 수비방해도 보였다. 많은 점수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판정에 승복하고, 경기는 속행되었다. 그러나 비전문가들의 눈에는 입장이 뒤바뀐 가벼운 반칙이 또 보였다. 전례가 있은지라 별탈없이 넘어갔다.. 결국 반칙은 반칙을 낳게 된 셈이다.

지난 79년 12월, 자유중국에서 폭동이 있었다. 여러날에 걸친 시끄러움이었지만 민간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시위 군중과 대치한 경찰과 헌병들만 다쳤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나서 당국은 조용하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소란을 피운 사람들은 모두 붙들리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마태오 26, 52)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따른 승리였다.

우리 사회에는 '영자의 전성시대'처럼 '반칙의 전성시대'가 너무 긴 것 같다. 이제 모든 부문에서 반칙을 줄여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할 것 없이 어디에고 반칙이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대낮부터 운동 중계로 사람들을 텔레비젼 앞에 바보처럼 앉혀두는 것도 반칙 중의 하나이리라.

숲정이 산책

좋은일 하십니다

교황님 만세

우리들의 첫번째 교황이셨던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양들을 잘 돌보아라"하고 이르셨다. (요한 21, 15) 이렇게 하시기를 무려 3차례나 반복하셨다.

교황직은 종 중의 종인 직분이다. 우리 모두 교황님의 헌신과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자.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도록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을 드리자.

□ 나는 요한 바오로라고 하겠읍니다

어제 아침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시스티나 경당에 선거하러 들어갔읍니다. 거기서 일어날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나에게 위험이 닥치자 내 곁에 있던 두 동료가 내게 격려의 말을 들려주었읍니다. "용기를 내시오. 주님이 짐을 지우시면 그걸 짊어질 노움도 주십니다." 다른 분도 나섰읍니다. "겁낼 것 없어요. 전세계 그 많은 이들이 새 교황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수락했읍니다. 그 다음 이름이 문제였는데, 무슨 이름을 택하겠느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나는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궁리를 했읍니다. 요한 교황님은 바로 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친히 나를 주교품에 올리셨고, 부당한 나를 베니스의 산마르꼬 주교에 올려 당신의 후임이 되게 하셨읍니다. 그곳 베니스는 아직도 요한 교황님의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곤돌라 뱃사공이며, 수녀들이며, 모두가 그 어른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오로 교황님은 나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몇 달 전 산마르꼬 광장의 가교에서 무려 2만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 얼굴을 새빨갛게 만드셨읍니다. 그 어른이 당신 영대를 벗어 내 어깨에 얹혀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황님은 십오년 재위기간 중 내게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고통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읍니다.

"나는 요한 바오로라고 하겠읍니다."

나는 요한 교황님의 '마음의 지혜(Sapientia Cordis)도 바오로 교황님의 자질과 학식도 갖추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의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교회에 봉사할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희망의 서광이 누리를 비춥니다 에서—

□ 영세 축시

새롭게 하소서

박 분 도(창순)

새롭게하소서
어제가 새로웠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웠으니
내일 또한 새롭게하소서

마음을 새롭게하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피어나는 것들을 새롭게하시며
생각마저도 새롭게하소서

눈을 새롭게하소서
그리하여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하소서

손을 새롭게하소서
그리하여 손길 닿는 모든 것들을 새롭개하소서

발걸음을 새롭게하소서
그리하여 발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하소서

혀와 입술을 새롭게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새롭게 하시며
하느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미도 새롭게하소서
그리고 분향같이 드리는 기도 또한 새롭게하소서

주여!
약속이 새로워지고 사랑이 새로워지는 기쁜날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남원 천주교회〉

* 축! 숲정이 500호 *

발간을 축하합니다

—레지오 마리에 일동—

의료 효과의 선구자!
神秘 食品, 土龍
(聖 베네딕트 수도원 제조)
성 모 土 龍 쎈 타
〈환, 정제, 캅셀, 엑기스〉
◎ 이리특약점 : 이리시 창인동(명보여관 앞 3층)
전화 ② 8253
◎ 전주 : 구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②8091
김 미 카 엘

신진 까스 상사
신속배달
가스렌지
기구시설
수리상담
전화 ③ 5448
1071
K.B.S 전주방송국 앞
최 안 드 레 아.

□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마델로)

종 교 와 정 치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화의 일환이라면, 지상의 인간관계 중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할 수 없다. 항간에는 정치가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또 정권이 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을 빙자하여, 교회가 정치문제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을 백안시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신자들은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종교가 정치문제에 관여하면 종교가 타락하거나 정치로부터 박해를 초래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종교분리원칙은 정치와 종교의 차원에서 논할 때와 정권과 교회의 차원에서 논할 때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정치나 종교의 대상은 바로 동일한 인간이다. 따라서 동일한 인간을 취급하는 정치와 종교가 상호 관련없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라는 원리적 차원에서는 정(政)과 교(敎)가 구별될 따름이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종교가 인간의 사회성을 취급하는 정치를 완전히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구체적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요, 내세의 유토피아만을 그리는 공리공론에 불과하며, 또 정치가 인간의 종교성과 윤리면을 완전히 무시하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특성을 배제하므로써 그 정치는 권력의 횡포나 권모술수에 불과하게 된다.

오스까르·쿨만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교회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무정부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② 교회는 국가에 대해 경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월권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교회는 비판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③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와 사상을 국민에게 강요할 때 교회는 이를 거부해야 하고 국가의 월권행위를 규탄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리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사회의 부정부패와 지나친 인권유린, 혹은 정치권력의 남용이 있다하면 이를 규탄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치의 고유한 기술적 분야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하여 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고 일종의 공통 신앙고백 행위이다. (제주 주보에서 발췌)

중앙성당 건립 25주년 기념성당 기공미사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우리가 지은 성전이야 말해 무엇하겠읍니까? (열왕 상 8, 27)라고 매 미사 끝에 기도바쳐 오던 중앙 본당은 예수 성심 대축일(18일)을 맞아 본 성당 건립 25주년 기념성당의 기공식을 금암동 언덕에서 가졌다. 문 정현 본당 신부님, 박 인호 보좌 신부님, 김 정원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였고, 4백 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였는데 뜨거운 뙤약볕에서도 열심히 기도 드리던 모습은 퍽 감동스러웠다. 미사후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땅을 축성하였고 기초를 놓기 위한 최초의 삽이 땅을 깊숙히 파헤쳤다.

본당 신자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성당이 완공 될 그 날까지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할 협력을 다짐했다. 이 날 헌금 중에는 몇개의 금반지도 들어있어 성전 건축의 밝은 전망을 보는 듯 했다. 이렇듯 정성스런 마음을 가지신 분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개업

성서를 읽지 않으시렵니까?

쉽게, 빨리 읽을수 있읍니다

초·중·고생 환영

완 전 속 독

「빨리 읽는 것만이 속독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력과 기억력이 따라야 합니다」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2층

☎ ③ 7088

이 강 심(엘리사벳)

□희 소 식

독사뱀 물린데 단시간 치료

⊙ 백발 백중 완쾌

전주시 전미동 1가397번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정미소 뒷집〉

☎ 5—3544

송준의(발라바)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 화 6429

송 베드로(관룡)

남 베로니카

슬라이드를 대여합니다

✻ 주일학교용

내 친구 예수님 2,000원

언제나 거절하는 나무 1,500원

돈 보스꼬의 생애1~4 4,000원

✻ 묵 상 용

십자가의 길 I 1,500원

십자가의 길 II 2,000원

시편79 500원

✻ 성 서

역사와 지리적 배경 3,000원

사회와 문화적 배경 3,500원

종교생활 배경 3,000원

성바오로서원 전화 ③ 339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원평성당 축성 : 7월 5일 〈월〉 오후 3시
2. 제 5 차 레지오 마리에 연수회 : 기간—7월 17일 10시~18일 15시, 장소—가톨릭센타, 등록금—6,000원(3,000원 지원), 대상—Cu·Pr단장 전원, 1~4차 연수회 불참 단원
3. M. B. W. 묵상회 : 7월 26일~29일, 회비—2만원, 접수—사목국, 대상—모든분들
4. 공소지도자 연수 : 일시—7월 19일~22일, 장소—가톨릭센타 회의실, 회비—5천원
   ※ 7월 5일까지 사목국에 접수 바람
5. 꾸르실료 운동 창시자 에르바스 주교 위독 : 꾸르실리스타의 기도 바랍니다
6. 축 ! 영명 : 29일—〈베드로〉 김영구, 서석기, 김병엽, 박창신, 엄기봉,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신부
   〈바오로〉 김후상, 이대권, 김영신, 문규현 신부
   7월 3일—〈토마스〉 서용복, 김정원, 이재후, 이종원, 김성진 신부

(중앙)

전화 ⑤1711~3

수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박 인 호
사도 회장

※ 성경읽기 : 지혜서 1장~2장
1. 중앙성당 건립 25주년 기념성전 건립 : 기도합시다
   신입합시다—본당신부님께 전화 혹은 면담
2. 사도회 상임위원회 : 7월3일 7시미사후 신부님사무실
3. 성심부녀회 : 7월 9일 어머니미사 후
4. 대학생회 : 영화상영 「과부의 헌금」
   일시—6월 27일 오후 7시미사 후 강당, 무료
5. 중학생 교리에 적극 참여합시다 : 매주〈토〉 오후 5시
6. 박인호 신부님 영명축일 : 27일 공식미사 후 축하식 있읍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739,23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신 부 ⑧0969번
수·사 ②7032번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이 흥 재

1. 축 ! 본당신부님 영명 : 7월3일(성 토마스 사도축일)
   ※ 축하식—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상임위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본당 웅변대회 : 8월 15일(몽소승천 축일)
   내용—① 말씀의 체험, ②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참가범위—초·중·고·대학생들, 많은 참여를…
4. 교무금을 납부합시다 : 교무금 수납부진으로 본당 운영에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읍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열왕기 상편 전체
6. 예비자교리 안내 :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학생—매주〈토〉 오후 4시, 남자—매주〈목〉 저녁미사후
7. 젠모임 : 매주〈토〉 오후5시, 미사—매주〈일〉 오전9시

□ 지난주 봉헌금 : 357,96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안 철 문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축 ! 본당신부님 영명(베드로)축일 : 축하식—27일 공식미사 후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공동체 묵상회(M. B. W) : 무사히 마쳤읍니다
   남자 27명, 여자 20명(지난번 묵상회—남자 3명, 여자 37명) 생활에 주님의 뜻이 같이 할 수 있도록…
3. 주일학교 : 미사—일요일 3시, 교리—일요일 2시
4. 진복회 부녀회 : 오늘 있음, 많은 참여 있으시길…
5.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임원들 빠짐없는 참석 바람
6. 동산촌공소 강당 환경미화 : 노고가 많았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42,820원

(복자)

전화 ③5238번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첫 첨례5 : 7월 1일〈목〉 저녁 8시
   첫 첨례7 : 7월 3일〈토〉 저녁 8시
2. 복자부녀회 : 7월 5일〈월〉 오전 10시 어머니미사후
3. 상관성당 강당, 교리실 신축 돕기헌금
   김복수(2만원), 조영호·양귀철·박상기·김종욱·박홍기(1만원), 서용현·유영상·전정순·김경조·정운주·정동민·허재석·이순희·정옥규·최복주(5천원), 박광수(4천원), 이명숙·홍윤자·신영희·이정숙·송영자·최재문·최점순(3천원), 설순님·이상기·김응식·이명순·이옥련·임종길·이기호·권영일·오영길(2천원), 황연례·장명례·전재진·남춘자·김연녀(1천원), 박영숙·김정태(5백원),
   계—169,000원(40명) ※ 헌금하실 분은 사무실에…
4. 반회합 실시보고 : 반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반모임 일지를 제출하시여 확인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주전례 : 해설—김화영, 독서—①김성원 ②은희영

□ 지난주 봉헌금 : 419,4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 명 환
사도 회장 황 인 구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매월 첫째주일 공식미사 전(9시30분) 미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예비자교리 : 매주일 청년반—오전 9시, 노인반—오전 11시(공식미사 후), 중·고학생반—오후 6시
4. 가정방문 : 일시—29일·30일·7월1일—7반·8반
5. 자모회 회원모집 : 주일학생 후원을 위하여 자모회를 조직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강태호 ②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 234,995원 교무금 : 375,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수·유③9567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김 수 겁

1. 축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6월 29일
   축하미사, 축하식 : 6월 27일 공식미사 후
2. 요안회 월례회 : 6월 27일 공식미사 후
3. 누갈다 부녀 월례회 : 7월 3일
4. 사도회 월례회 : 7월 4일 공식미사 후
5. 주일미사전 성가연습 : 성가집을 가지고 나와 매주 10분간 한 곡씩 배웁시다
6. 미사 전례담당 : 해설—이기호
   독서—남상룡·임동주, 기도—이은자
7. 미사참례자 안내 : 나흥덕, 문스텔라, 정공순, 이정숙, 육루시아

□ 지난주 봉헌금 : 466,810원

(전동)

신부 ⑨6208
사무 ②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박 병 준
사도 회장 이 종 두

1. 축 ! 영명 : 본당신부님, 공식미사후 축하식
2. 글라라 형제회 : 오늘 1시30분
3. 올뜨레야 : 저녁미사 후
4. 성가정회 : 7월 1일 오후 2시
5.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유아세례 : 다음주 8시30분 미사후
7. 첫 영성체 교리 : 7월 2일 오후 5시 첫모임
8. 신축기금 : 오윤길·조일주·유씨(각 10만원), 김동년(3만원), 김경자(2만원), 백혜정·김양순·권재금·석란수·박양순·서영자·강수희·김종순·신정순·윤길순(각 1만원), 박종수·이종순·김헬레나·박루시아·홍모니카·정마리아·최마리아·범금례 (각 5천원), 김옥순(3천원)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헌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백종흠 ②이영희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신자들의 기도 : 양혜정(헬레나)

□ 지난주 봉헌금 : 529,22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황 희 상

1. 오늘 교황주일 : 영적·물적 예물을 정성껏 보냅시다
2. 전례분과위원회 : 오늘밤에 있읍니다. 참석해 주세요
3. 7월 3일은(토요일) 성모기사회 날입니다
4.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에 있읍니다
5. 꾸리아 회합 : 다음주에 있읍니다
6. 성모회 월례회 : 다음 금요일, 많은 참석 바랍니다
7. 주일미사와 교리반에 어린이를 많이 보내 주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194,140원 교무금 : 324,000원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7 4 4 0